

장미철 미술작품 보관법

습기 조절, 자주 통풍시켜주면 되고 곰팡이 먼지, 붓으로 털어내면 되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23일을 전후로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다. 장미철이 시작되면 집안 구석구석...



습기가 많은 장미철에는 그림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한번씩 부드러운 솔이나 붓 등으로 표면을 털어 줘야 한다.

“내 몸 건강 챙기듯 아껴야”

▲그림의 적은 습기=광주시립미술관의 수장고는 습도 50%, 온도 섭씨 18~22도를 유지하고 있다. 습도 70% 이상이 되면 그림에 곰팡이가 잘 생기고, 온도가 높으면 탈색되기 쉽다.

▲동양화 관리는 더욱 세심하다=동양화는 얇은 화선지가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나 천, 비단 등에 그림을 붙여 보관하는 배접(裱接) 과정을 거친다.

장마가 지나가면 서늘한 곳에 그림을 내놓고 바람이 통하게 해야 한다. 또 부드러운 솔이나 붓 등으로 그림 표면을 쓰다듬듯 털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습도계, 온도계를 구입해 체계적으로 습기를 조절해주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동양화 관리는 더욱 세심하다=동양화는 얇은 화선지가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나 천, 비단 등에 그림을 붙여 보관하는 배접(裱接) 과정을 거친다.

▲동양화 관리는 더욱 세심하다=동양화는 얇은 화선지가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나 천, 비단 등에 그림을 붙여 보관하는 배접(裱接) 과정을 거친다.

유화보다 습도 조절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환기를 통해 바람에 녹녹해진 종이를 말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작가가 작품에 남겨 놓은 낙관이 쉽게 지워질 수 있어 여름철 햇빛도 조심해야 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채종기 학예실장은 “낙관을 찍는 인주는 빛이 쬐면 색이 바래는 산화수은(酸化水銀) 성분이다”면서 “낙관이 지워지면 재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서 빛이 닿지 않도록 낙관이 있는 부분만이라도 두꺼운 종이로 가려 놓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채종기 학예실장은 “낙관을 찍는 인주는 빛이 쬐면 색이 바래는 산화수은(酸化水銀) 성분이다”면서 “낙관이 지워지면 재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서 빛이 닿지 않도록 낙관이 있는 부분만이라도 두꺼운 종이로 가려 놓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퓨전국악 ‘신명난 타악의 세계’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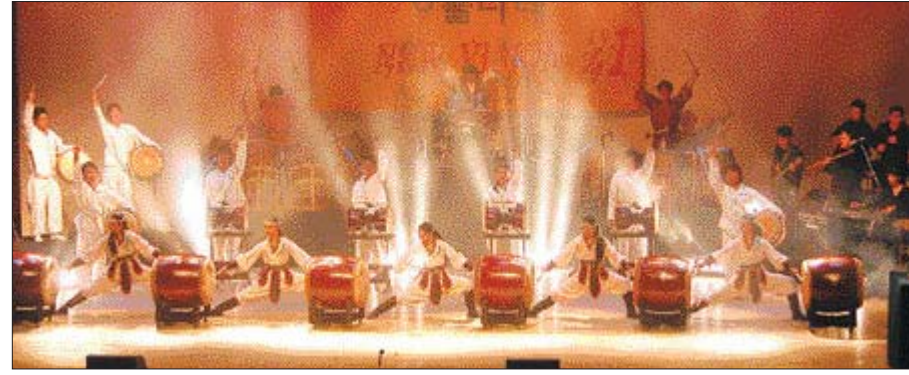
‘하늘다래 예술단’ 공연

11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신명난 타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파편한 음악은 가라. 노년층부터 어린이 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퓨전 국악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가다.

자칫 고리타분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국악에 역동감 넘치는 가락을 입히고 서양음악과의 협연을 시도하는 등 국악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하늘다래 예술단(단장 최상진)이 이번엔 퓨전 국악콘서트 ‘힐 소리가 나에게 힘이 되었다’를 무대에 올린다.

11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 판소리 고법 이수자로 현재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상임지휘자로도 활동중인 최상진씨가 제자들과 함께 꾸린 하늘다래 예술단은 이번 공연에서 최씨의 창작곡인 ‘뉴 비전 21’ 시리즈를 선보인다.



성지우 양.

리듬을 만들고 검무와 노래를 결합시켜 멋진 앙상블을 만든 ‘뉴 비전 21-놀이’ 등은 사물놀이와 흥겨운 감흥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관·정진성·안찬연·이승훈 씨 등 20여

명의 단원들이 출연하며, 특히 올 봄 개인 콘서트를 가졌던 국악 끝나루 성지우(화정종 3)양과 정창진(천안 부성초 5)군은 모듬북 등 타악 연주 뿐 아니라 국악가요(‘간양록’ 등), 25현 가야금 연주(‘황금산의 백도라지’) 등 다채로운 가를 보여준다.

이번 무대에서 타악 공연만 펼쳐지는 건 아니다. 임방울국악계 대령상 수상자인 박춘맹씨와 서울국악대전 대령상 수상자인 고현미씨, 연극배우 김상오씨는 단막극 ‘행파전’을 선보이며 장우정씨의 신무용, 박해빈씨의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장르를 무대에 올린다. 문의 062-521-3620.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 동호인들 ‘나주 데일리 앙상블’ 창단

9일 문예회관에서 첫 공연

음악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모여 순수 민간 클래식 연주단을 만들었다.

동신대 교수와 동신대 음악원 ‘콘서트마스터’ 외래교수 주축이 돼 ‘나주 데일리 앙상블’(대표 최영경 동신대 실용음악학과 교수·이하 연주단)을 창단했다.

연주단은 오는 9일 오후 6시30분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 시민을 위한 희망의 멜로디’라는 주제로 창단 기념 첫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단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가브리엘 포레의 ‘승리’, 베르디의 ‘여자의 마음’ 등을 들려주며, 광주에 고 흥성



최영경 대표

양 등과 함께 ‘스승과 제자의 앙상블’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연주단 멤버뿐만 아니라 동신대 ‘하늘 바람’ 중창단과 사회복합체 ‘나주 데일리 앙상블’ 등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한편 연주단은 최영경 대표(피아노), 양내수(바이올린), 오영화(플루트), 이승아(첼로), 김진영(피아노), 노연선(소프라노), 김백호(테너)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삼성 비자금 의혹의 핵심

‘행복한 눈물’ 뉴욕서 전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로 관심을 모았던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팝아트 작품 ‘행복한 눈물’이 미국 뉴욕의 화랑에서 전시되고 있다.

갤러리 관계자는 4일(현지시간) 이 작품의 소유주가 한국의 서미 갤러리 인지를 묻는 질문에 “작품의 소유주를 알려줄 수 없다”며 확인하기를 거절했으나 “전시 중인 ‘행복한 눈물’은 원작이고 세계에 하나 뿐인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500부터 (6,7,8,9월에 한하여). 위 가격은 1인 식비를 기준으로 하며 10% 세금이 별도 부가됩니다.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도. 토지매매. 전월주택. 임야. 기타부동산.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빌딩. 땅. 아파트. 주택. 상가. 기타.

대지공인중개사. 구할니다. 시민주주소구할. 임대소유이 많은 상가건물구할. 관리지역 임야 구할.

금보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건물매매. 임대주택. 매매. 기타.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정호환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할.

한일지도판매(주).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순창·정읍·양성)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